서효인의 '좌측담장'

빛과 어둠, 설레발과 역(逆)레발

야구팬의 성격이나 성향이야 사람의 숫자만큼 다양할 것이다. 나는 평소에 그저 나와 같은 팀을 응원하는 야구팬과 아닌 야구팬 이렇게 둘로 나눌 뿐이지만, 특정 팀이 아닌 야구를 대하는 태도나 관점을 기준으로 두자면 다음 분류가 꽤 그럴듯할 것이다. 어둠의 야구팬과 빛의 야구팬. 부정의 야구팬과 긍정의 야구팬. '역레발'의 야구팬과 설레발의 야구팬. 당신은 어디에 속하는가? 나의 경우를 먼저 고백하자면, 빛보다는 어둠에 가까운 것 같다. 설레발보다는 괜한 걱정이 더 어울리고, 긍정보다는 부정할 때 에너지가 더 커진다. 환호보다는 탄식에 친연성을 느끼며 승리의 기운보다 패배의 참혹에 더 영향을 받는 사람이다.

필자와 같은 어둠의 야구팬이 보이는 만성적인 불안 증세는 다음과 같다. 늘 질 것만 같고 위기에는 실점할 것 같으며 기회는 무산될 것 같은 예감. 정규 시즌에는 가을 야구에 탈락할 것만 같고, 가을 야구에 진출하면 첫 번째 시리즈에서 탈락할 것만 같은 느낌. 잘했던 플레이는 금세 잊히지만 본헤드 플레이는 몇 년이고 잊지 않는 편향된 기억력. 이를 두고 야구팬의 용어로 '역레발'이라고 하는데 이는 약간 주술적인 의미도 있다. 패배할 게임을 승리로 바꾸는 정도의 진짜 주술은 아니고, 닥쳐올 패배에 상처받을 자기 자신을 미리 잽싸게 위로하는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시즌 초 KIA의 경기력은 어둠의 팬 내면에 깃든 '암흑의 핵심'(조셉 콘라드의 소설 제목)을 건드리는 모양새다.

직전 시즌 우승을 만끽한 선수들에게 올해 각오를 물으면 이런 대답이 돌아오곤 했다. "작년 우승은 모두 잊었습니다." 터트린 샴페인은 잊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다짐이겠지만, 최근 KIA 타이거즈의 야구는 저 말이 말 그대로 우승할 때의 경기력을 '망각'하겠다는 망설로 들리게 한다. 불안한 뒷문은 여전한데, 타자와 선발 투수의 지표는 거의 전 부분에서 작년에 비해 한참이나 뒤처진다. 탄탄했던 수비는 어딘지 삐걱거리고 엉성하다. 4월 18일 현재 성적은 승과 패가 같은 5할 승률. 반이나 이긴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의 경기력인데, 남은 봄과 다가올 여름은 어쩌나, 걱정이 앞선다.

프로 야구의 한 시절을 지배한 강팀을 두고 흔히 '왕조'라고 하는데, 40년이 다 되어 가는 역사를 지녔지만 KBO에서 왕조라 불린 팀은 80~90년대 해태, 2000년대 현대와 SK, 2010년대 삼성 정도다.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하고 그중 통합 우승(페넌트레이스와 한국시리즈를 동시에 우승하는 것)은 덤이며 설사 우승에 실패하더라도 한국 시리즈에는 진출하는 팀. 최근에는 두산 정도가 그에 근접한 팀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팀을 꺾고 우승한 팀이 KIA인데, 올해 초반에는 플레이가 작년만 못한 것이다. 2009년에도 당시 김성근 감독을 중심으로 건실한 왕조를 꿈꾸던 SK를 누르고 우승했었다. 이윽고 다음 시즌에 KIA는 거짓말 같은 연속 패배 행진을 하는데…. 그렇다. KIA팬 내면에 똬리를 튼 암흑의 핵심은, 2010년 16연패다. 그리고 이 말을 감히 내뱉는 것은 나의 설레발, 아니 '역레발'이다.

엊그제 17일 경기에서 9회 초 실책에 의한 실점으로 동점이 됐을 때도, 5연패라는 숫자가 아른거리며 다시 암흑의 핵심이 꿈틀거렸다. 다행히 다음 공격에 상대방 실책과 김주찬의 활약으로 연패를 끝낼 수 있었지만, 어째서 작년과 같은 시원한 승리를 하지 못할까, 찜찜함은 남았다. 왜 이겨도 그러느냐고? 나는 어둠의 야구팬이니까. 부정성의 팬이니까. 어차피 상처 입을 나를 내가 먼저 위로하고 싶어서.

내가 아는 또 다른 KIA팬은 빛의 야구팬이고 긍정의 화신이다. 그의 내면에는 나와 달리 '광휘의 속삭임'(정현종의 시집 제목) 같은 게 있는데, 어처구니없는 역전패를 당한 날에도 "괜찮아, 내일 이기면 되니까" 하며 소주를 꼴딱 삼키는 것이다. 그 팬의 빛은 팀의 모든 곳을 비춘다. 유망주의 가능성은 이제 만개할 것이고 베테랑의 전성기는 이제 시작이다. 강속구 투수는 제구만 잡으면 최고가 되고 실책이 잦은 선수는 반복 훈련으로 약점을 극복할 것이다. 연패가 있으면 연승이 있는 법이며 좋지 않은 경기력이라도 이겼으면 그것으로 다행이고, 잘하다 삐끗해서 지면 내용은 괜찮았으니 그것대로 다행인 사람이다.

그에게 올 시즌 초반 KIA의 행보는 본격적인 여름 순위 다툼을 앞두고 숨을 고르는 과정에 불과한 것 같다. 이러다 여름이나 올스타 휴식기 이후가 승부처라 할 것이고, 그것도 지나면 잔여 경기 일정과 결과가 중요하다 할 사람이다. 그것이 빛의 야구팬이 야구를 즐기는 방법이다. 그의 광휘의 속삭임은 왕조 시절의 전국구 스타들의 활약에 있다. 이종범과 선동열을 입에 올릴 때는, 빛나던 그 시절 그들에게 받았던 유년의 위로로 이미 충분하다는 표정이다.

오늘 경기를 앞두고도 우리 둘은 메신저로 설레발과 역레발을 주고받았다. 상대방 투수는 외국인 에이스. 그는 우리 팀이 전통적으로 외국인 에이스에게 강하다고 말하고, 나는 우리 팀이 전통적으로 낯선 투수에게 고전한다고 말한다. 어느 전통이 진짜 전통인가? 둘 다 가짜이며 동시에 진짜이겠지만, 야구장은 빛과 어둠이 섞이는 해 질 녘에 가장 아름답다는 사실은 잘 안다. 빛의 팬과 어둠의 팬이 야구장 혹은 중계 화면 앞에서 뒤섞이고 있다. 사람의 숫자만큼 다양한 야구 사랑의 방식으로. 〈시인〉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의료칼럼

겨드랑이 땀 냄새

신 삼 식
뷰티스 맑은피부과 원장

땀이 많아 날씨가 조금만 더워져도 온몸에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사람들에게 여름은 힘든 계절이다. 특히나 겨드랑이의 땀은 새 옷을 입어도 금방 얼룩지고 냄새가 나서 사회생활에 많은 지장을 준다. 올 여름 무더운 날씨는 예년보다 더 오래 지속할 것이라고 한다. 매년 반복되는 땀과의 전쟁을 끝낼 수는 없을까. 땀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몸에서 배출되는 정상적인 생리 반응이다. 하지만 체온 조절에 필요한 땀보다 4~5배 더 많은 땀이 특정 부위에 나게 되면 생활에 지장을 준다.

음식을 먹을 때 이마나 콧등에 땀이 많이 나거나, 겨드랑이에 땀이 배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이다. 겨드랑이의 땀은 냄새를 동반하기도 하고 옷 색깔을 누렇게 변하게 해 직장인들에게는 골칫덩어리이다. 땀 냄새를 줄이기 위해 평소에 뿌리는 약이나 향수를 써보기도 하지만 효과는 미약하다. 이 중 다한증은 땀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나는 경우로 18~50세 성인의 20%에서 발생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질환이다.

보통 암내라고 불리는 액취증은 겨드랑이에 심한 악취가 나는 증상으로, 액취증이 심한 사람들은 학교나 사무실과 같은 좁은 공간이나 사람들이 모인 공간을 기피하게 되고, 심한 경우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런 액취증 환자의 50~60%는 다한증까지 동반하고 있어 이들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겨드랑이 다한증과 액취증에 대한 치료는 보톡스 시술과 외과적 수술법, 그리고 미라드라이 시술법이 대표적이다. 보톡스 시술은 땀의 분비를 촉진하는 신경을 마비시키는 방법으로 시술 후 2주째부터 효과가 나타나지만 효과가 6개월 정도라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시술 시간이 5분으로 짧아 시험을 앞둔 사춘기 청소년이나 바쁜 사람들에게는 임시방편의 좋은 치료법이다. 외과적 수술은 수술 후 흉터가 생기거나 입원이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하는데 시간이 2주 이상 오래 걸리는 등 수술에 대한 환자의 부담감도 높은 치료 방법이다.

미국 FDA에서 다한증 치료에 승인받은 미라드라이 시술은 이러한 단점들을 해소하면서 불쾌한 겨드랑이 땀 분비와 냄새를 한꺼번에 없애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는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 1~2일 전에 집에서 제모를 한 뒤, 병원에서 국소 주사마취 후에 1시간 정도 레이저를 쪼이는 시술이다.

극초단파를 이용한 미라드라이 시술은 피부는 보호되면서 피하의 땀샘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게 되는데, 땀을 과다하게 분비하는 겨드랑이 땀샘 부위에 극초단파가 열에너지를 발생시키고, 피부 속에 전달된 열은 피부 속 물 분자의 진동을 일으켜 60도 정도의 열 손상으로 땀샘세포를 파괴시킨다. 이와 동시에 피부 표피와 진피 부분에는 냉각 기능을 적용해 피부 손상을 방지하기 때문에 안전한 치료이다.

미라드라이 시술은 미국과 일본의 임상치료 결과 90%의 높은 치료 효과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땀 분비와 땀 냄새가 너무 심한 경우나 땀샘이 너무 깊게 위치한 경우는 2차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 치료 후에 일부 쓰라림과 붓기 호소, 불편감, 통증을 호소할 수 있으나 몇 주 후에는 사라지고, 시술 후 영구적인 부작용은 거의 없다. 겨드랑이 다한증과 액취증을 단순히 체질의 문제라 생각하고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름이 오기 전에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길 바란다.

기 고

할미꽃 같은 후보 없나요?

권 병 주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전남 장흥군 회진면 덕산리 산 56.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 위 주소로 가다 보면, 장흥군의 남쪽 끝자락인 회진항에서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한재공원이 있다. 4, 5월이면 흰 털을 잔뜩 단 꽃대와 수줍은 듯 고개 숙인 자주색 꽃이 지천으로 피어, 오는 이들을 반겨준다.

장흥에 살면서도 한 번도 찾은 적 없는 이곳, 한창 바쁜 선거철임에도 일부러 찾았다. 요즘 들어 유난히 할미꽃의 꽃말이 머릿속을 맴돌고 가슴을 울리기 때문이다. 할미꽃은 두어 개의 꽃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경'이 와 닿는다. 유권자의 참뜻을 공손히 받들어 모셔야 함에도 당리당략에 치우치는 말과 행동을 하고, 개인의 영달만 추구하는 정치인들이 많은 점에서 더욱더 그렇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몸담고 있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치인들의 비전이나 속내를 자주 듣게 된다. 듣다보면 대략 네 가지로 정리가 된다. 절망, 실망, 무덤덤, 희망.

어떤 이는 지역에 대한 청사진은 없이 돈 폭탄을 뿌려서라도 당선되겠다는 추악한 야심(?)을 드러낸다. 그것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앞에서. 절망적이다. 다른 어떤 이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정책이나 공약을 침을 튀겨 가며 열변을 토해 듣고 있는 나를 실망하게 한다. 또 다른 어떤 이는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정도는 몰라도, 지역을 이끌어갈 적임자는 아니라는 생각에 무덤덤해진다. 마지막으로 어떤 이는 지역 토박이인 나를 솔깃하게 만드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인품까지 깨끗해 가슴을 설레게 한다. 이처럼 가슴 설레게 하는 정치인이 너도나도 출마해 투표장에서 '도대체 누굴 찍어야 하나' 하는 행복한 고민을 했으면 싶다.

이제 선거가 60여일 남짓 남았다. 이번 지방선거의 슬로건은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이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성실하고 일 잘하는 일꾼, 동네 골목골목을 누비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하는 일등 일꾼을 뽑자는 의미이다.동네 사람들은 거품이 잔뜩 낀 후보자들 사이에 끼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후보자를 찾아내어 동네방네 소문내야 한다. 투표장에서는 동네 사람들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할미꽃은 작은 키에 꽃대마저 구부러져 있어 얼핏 보면 눈에 띄지도 않고 이름 모를 수수한 들꽃 같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허리를 구부리고 들여다보면 꽃봉오리는 투명한 자수정처럼 빛나고, 꽃잎 주변의 보송보송한 잔털은 부드러움을 지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겉치레만 요란하기 보다는 수수하면서도 아름답고, '공경'의 뜻을 담은 할미꽃 같은 후보자가 많이 당선됐으면 한다.

야생 동물과 함께 하기 위한 배려

나 호 명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방역과장

광주천에서 산책을 하다가보면 수달의 분변에 의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생태 하천 조성으로 수변이 버드나무들로 우거지면서 광주천의 수질이 많이 좋아졌다. 또한 왜가리들이 먹이를 찾으며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장면도 목격된다. 도심에서 수달이나 왜가리와 같은 야생 동물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는다.

야생 동물은 자연에서 나서 자연에서 자라는 동물을 말한다. 도시화와 경작지 조성으로 야생 동물의 서식지가 줄어들어 도시권에서 목격하기 쉽지 않다. 더구나 사람의 활동에 위협을 느낀 야생 동물은 도심 공원 숲과 하천에서 은밀히 살아간다.

야생 동물을 목격하면 뉴스거리가 된다. 아파트 뒷산에서 다람쥐라도 보면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가워 소리치기도 한다. 야생 동물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이 내면 깊숙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광주의 도심에서 야생 동물을 보기란 쉽지 않다. 그동안 꾸준히 근린공원과 수변공원을 조성한 결과 새 소리가 울려 퍼지고, 무등산 자락에 담비가 출현해 카메라에 포착된 적도 있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옛 국군병원의 대나무 숲과 영산강 습지에서 맹꽁이를 볼 수 있다. 영산강과 황룡강의 수변과 무등산과 어등산 등에서 말똥가리, 뜸부기, 노랑부리저어새, 수리부엉이, 올빼미, 팔색조, 독수리를 만나게 된다.

그러나 운행중 도로에서 야생 동물이 차에 치여 죽어 있는 장면을 보거나 덫에 걸린 동물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지난 3년 동안 광주 지역의 야생 동물 치료는 반려동물병원이 338건을 처리했으나 직접 구조·치료 후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일이 쉽지 않았다. 부상이나 조난당한 야생 동물을 구조해 재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면 60% 이상의 방사율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부터 광주시는 긴급 외상센터 개념의 야생동물센터를 신축하고 있다. 앞으로 구조에서부터 재활,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한 적응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광주는 무등산국립공원과 영산강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이곳에 살고 있는 야생 동물을 지켜낼 의무와 책임이 있다. 우리 생활 주변에 사는 야생 동물이 보다 안전하게 살아갈 이동 통로 조성과 서식지 보전이 함께 이뤄진다면 광주 지역 야생 동물은 건강한 생태계 유지와 함께 그 존재만으로도 시민에게 큰 위안을 줄 것이다.

社 說

시장 경선 변수 … 윤장현 지지 표심 어디로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돌입하면서 강기정·양향자·이용섭 세 명의 후보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권리당원과 불출마를 선언한 윤장현 광주시장을 지지했던 표심의 향배가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은 내일까지 사흘간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샘플 6만 개)와 권리당원 ARS투표 50%(샘플 4만4000개)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경선 결과는 내일 오후 7~8시께 중앙당에서 발표하는데,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그대로 확정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1·2위를 대상으로 오는 23~24일 결선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현재 세 명의 후보 중 여론조사 결과에서 앞서 왔던 이 후보가 탈당 전력 탓에 경선에서 10% 감산 페널티를 받음에 따라 혼전 양상을 띠고 있다. 경선에선 5만여 명에 이르는 광주 지역 권리당원의 표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때문에 후보들은 경선 과정에서 지역별 권리당원 조직 등을 흡수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강 후보는 민형배·최영호 전 예비후보와 단일화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 많은 권리당원을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고, 이 후보도 상당수 권리당원의 지지를 바탕으로 우위를 주장하고 있다. 양 후보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지세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 윤장현 시장을 지지했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도 관심거리다. 이와 관련 강 후보는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윤 시장을 따르고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우리 캠프에 합류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후보들 간에 윤 시장의 조직과 인력을 흡수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윤 시장 지지표가 어느 정도 분산될 수밖에 없겠지만 어느 후보에게 더 많이 가느냐가 치열한 경선전을 좌우할 막바지 요인이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4·19혁명 58돌 그러나 먼지만 수북한 기념관

1960년 3월 15일 12시 45분. 자유당 정권의 부정 선거에 격분한 시민·학생 1200명이 금남로 4가 민주당 정·부통령 후보 전남 선거사무소 앞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곡(哭)! 민주주의 장송'이라 쓴 플래카드를 들고 전남도청 경찰국을 향해 행진했다.

시위대가 금남로 1가에 이르자 무장 경찰관 300여 명이 소총 개머리판 등으로 진압에 나섰다. 많은 사람이 피투성이가 돼 쓰러졌다. 이필호 국회의원의 부인 정미란(당시 36세) 씨는 임신 7개월의 몸이었으나 경찰의 무차별 폭행으로 2개월 후 세상을 떠났다.

시위는 40여 분 만인 1시 25분께 강제 해산됐지만 4·19 혁명의 시원(始原)이 됐다. 광주에서 벌어진 3·15의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정 선거를 규탄한 것으로, 마산 1차 시위보다 세 시간이나 빨랐다. 하지만 아쉽게도 역사적인 위상에 걸맞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 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광주 4·19 혁명 기념관'이 관리 부실 등으로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오늘은 4·19 혁명 58주년이 되는 날. 이를 계기로 기자가 미리 찾아본 전시관의 입구 안내 데스크는 텅 비어있었고 전시물 유리창은 얼룩투성이었다. 전시관은 4·19 관련 3개 단체에서 공동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 광주 3·15의거와 4·19혁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 따라서 '4·19 혁명 기념관'의 활성화 방안이 절실하다. 예산 지원을 늘려서 광주공원 4·19 추모비 등 관련 유적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기념관이 광주 4·19혁명의 역사와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無 等 鼓

'조르바' 시험지

모의고사 시험지를 보자 조금 긴장이 됐다. 어떤 종류든, 세상의 모든 시험지는 받으면 일단 떨리는 법이다. 문제는 모두 15문항.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이어서 조금은 안도가 됐다. 4번까지는 술술 잘 풀어 나갔는데 5번에서 막혔다.

내가 받아든 시험지는 민음사에서 나온 문학 모의고사 1교시 '그리스인 조르바 영역'이다. 첫 문항은 소설의 작가를 묻는 질문. 누워서 떡 먹기다 싶었더니 골라야 하는 보기 중에 '카잔카치스'와 '카잔차키스'가 있었다. 수십 년 전 처음 접했을 때야 이름을 외우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잘 안다 싶었는데 '시험'이라 생각하니 심사숙고하게 된다.

막혀 버린 5번 문제는 "화자가 조르바를 보고 맨 처음 가장 강렬하게 느낀 곳은?"이다. 눈빛, 팔뚝, 가슴 털, 얼굴의 상처 중에서 고르는 건데 도통 기억이 나지 않았다. 결국 20여 년 만에 다시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고 있다.

얼마 전 동네 서점에서 얻어 온 시험지 덕에 잊고 있었던 '책'을 다시 접하게 된 셈이다. 시험지는 지난 2월 새로운 번역본을 출간한 민음사가 독서 노트와 함께 이벤트로 독자들에게 나눠준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내 인생의 책'으로 꼽는 '그리스인 조르바'는 그리스의 시인이자 소설가·정치인·여행가이기도 했던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실존 인물 조르바를 모티브로 쓴 소설이다. 다시 읽어 본 소설은 예전과는 느낌이 조금 달랐다. 여성을 언급하는 일부 부분에서는 불쾌감도 일었다.

하지만 소설을 관통하는 주제를 보여 주는 이런 대화는 여전히 마음에 닿고 설렌다. "그런 점은 이해하셔야 할 겁니다요. 나는 인간이니까." "인간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지요, 조르바?" "글쎄, 자유라는 거지." 카잔차키스의 그 유명한 묘비명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와 상통하는 대목이다. 요즘 같은 시대, 조르바의 '자유'는 한없이 부럽기만 하다.

참, 마지막 문제는 누구나 100%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조르바의 작가가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받은 인물이 아닌 사람은?" 보기는 호메로스, 베르그송, 니체, 그리고 박근혜. 모두 답을 찾았겠지요?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